

OpenDoors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월간 소식지

VOL.270 | 2024 OCTOBER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와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네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네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네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네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 이사야 60장 1-3절 -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기억해주세요

- 우리의 이야기

행동해주세요

- 기도와 정의의 나무

박해와 선교현장

- 모리타니 (MAURITANIA)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7)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OpenDoors
이웃사랑과 기쁨을 나누는 사람들

한국오픈도어를 섬기는 사람들

2024년 10월호 | 통권 270호 |
등록번호-중랑, 라00042

공동대표 : 김성태 교수(국제관계), 신현필 목사(개발지역)

이사장 : 김성태 교수

부이사장 : 김영복 목사

이사회 : 서창원, 노창영, 김영우, 최홍규, 이동현,
배춘섭, 윤상덕, 이바울, 김택호 이사

사무총장 : 김경복 선교사

개발/행정/재정/홍보/정보 : 문민환, 임훈희, 박인영,
민태홍, 김하영 간사

북한선교 : 이제나, 이다니엘, 윤수지, 안요한, 김안나,
한아론, 장요셉, 한로이 간사

발행처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02153 서울시 중랑구 봉우재로 133, 화성빌딩 2층

전화: (02) 596-3171 팩스: (02) 594-3171

이메일: odsk@opendoors.or.kr

홈페이지: www.opendoors.or.kr

카카오톡 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편집 및 디자인 : 김선희

후원하기

<후원신청>

한국오픈도어선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후원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정기후원과 일시
후원**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후원을 원하시는 분
은 **홈페이지의 '후원하기'를 이용해 주세요.** 또는
소식지 가장 뒷면에 있는 CMS 정기후원 양식을 작성해서 보내주
세요.



* 홈페이지를 통해 후원하기를 신청하시면 '기부금영수증'은 자동발급 됩니다.

<계좌이체>

직접 계좌이체를 통해 후원하기를 원하시면 아래의 계좌로 후원
하실 수 있습니다.

* 서면으로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셔야만 '기부금 영수증'이 발급 가능하
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문의 부탁드립니다.

<일시후원계좌>

라틴아메리카: KEB하나은행 630-007636-461

중앙아시아: 우리은행 1005-201-884969

중동(걸프 포함): 우리은행 1005-701-884976

아프리카: 우리은행 1005-901-884982

아시아: 우리은행 1005-901-884970

북한: KB국민은행 029301-04-169183

선교회후원: KB국민은행 029301-04-167093

희망의선물: 신한은행 100-027-453994

어린이&청소년 캠페인:

KEB 하나은행 280-890028-03905

여성사역 캠페인: 신한은행 100-027-219169

*예금주 공통: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오픈도어는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의 도서잡지 윤리강령 및 잡지
윤리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픈도어 핵심가치



-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이다
- 우리는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긴다
- 우리는 성경의 사람이다
- 우리는 기도의 사람이다
- 우리는 믿음으로 살며 사역한다
-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지상명령에 헌신한다
-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역한다

목차

03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04 기억해주세요 - 우리의 이야기

08 행동해주세요 - 기도와 정의의 나무

14 박해와 선교현장 - 모리타니 (MAURITANIA)

20 북한선교현장 -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7)

22 Heart To Heart

- 성경대학시리즈 (Mission Bible College)
- 희망의 선물
- 한국오픈도어 연중 캠페인

- 부록 - 전세계 박해 받는 교회를 섬기는
오픈도어선교회 기도월력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Stop the violence, Start the healing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키다

세계 어느 곳보다도 아프리카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오픈도어 연구에 따르면, 출생아 추산했을 때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한 기독교인들 중 95%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대부분이 나이지리아-에서 발생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을 향한 폭력은 그야말로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폭력은 충격적인 이주 위기를 몰고 왔습니다. 오픈도어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폭력과 충돌로 인해 쫓겨난 대략 3,450만명 중 최소 1,620만명을 기독교인으로 추산합니다. 그리고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인해 집과 땅에서 쫓겨났습니다. 이 같이 증가하는 위기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에 상처를 입히고 식량 불안, 트라우마, 빈곤, 그리고 절망과 같은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교회는 상처를 입었지만 회복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도어와 동역자님들에게 요청합니다. 그들이 박해가 가장 극심한 곳에서도 계속해서 소

금과 빛이 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히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도움을 구합니다.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일으켜 주시기를,, 저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Arise Africa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작년에는 젊은이들에게 집중했습니다. 올해는 실항민들에게 집중하고자 합니다. 캠페인은 앞으로 2년 동안 더 진행되며 아프리카 교회가 믿음으로 살아 가며, 다음 세대를 새롭게 할 수 있도록 함께하고자 합니다.



기억해주세요

- 우리의 이야기

바나바 목사의 이야기

저는 바나바 목사입니다. 아내와 다섯 아이와 함께 국내 실향민 캠프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는 이곳에서 산지 4년이 지나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저희 천막은 2인용 침대 사이즈 만도 못하고 판지로 격렬한 태양의 열기를 가리곤 합니다.

이 곳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저희는 폭력을 피해 이 곳으로 왔습니다. 나이지리아에는 수백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이곳 나이지리아에서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뉴스는 이에 대해 신경 쓰지도 않고, 정치인들도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어두움 가운데 있습니다. 잊혀졌다고 생각하면 어떠시겠어요?

저는 무장세력이 총과 마체테를 가지고 농장을 공격했을 때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제 형과 형수는 총을 맞고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는 도망치다가 작대기로 공격을 당해 손이 부러졌습니다.

집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불탔습니다. 이제는 이곳 캠프에서 가족들을 돌볼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줄 수도 없습니다. 자녀들은 더 이상 학교에 갈 수 없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양들을 돌봐야 하는데, 성도들은 열악한 상황으로 인해 주님께 대한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줄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여전히 저를 살아가게 하시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하셨기에 그분 안에서 용기를 잃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의 시선과 소망은 주님께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싸움을 싸워 주신다면, 저희에게 좋은 날이 다시 올 것입니다.



기도제목

캠프에 있는 저희 기독교인들을 도울 방법이 있다면 행동해주세요. 주님께서 여러분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희의 삶을 보호해주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이 일을 계속하게 해주시도록 함께 기도해주세요. 앞으로의 공격으로부터 저희를 보호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아브라함의 이야기

자정 즈음에 풀라니 무장세력들이 저희 마을로 왔습니다. 그들은 손전등을 비추며 죽일 사람들을 찾고 있었습니다. 제 형은 문을 잠그기 위해 일어났는데, 그들은 문 사이로 형을 쏘았습니다. 그가 밖으로 나오자 그들은 형의 머리에 총을 쏘았습니다.

저는 아브라함입니다. 그날 일어난 일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3년도 더 지난 일이에요. 그 다음날 아침, 아내와 세 자녀와 함께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국내 실향민 캠프로 왔습니다. 저희는 그 이래 줄곧 이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국내 실향민 캠프에는 3,000명이 살고 있습니다. 전부 기독교인입니다. 이들은 모두 마을 공격으로 인해 이곳에 있습니다.

저희는 화장실이 단 15개 밖에 없고, 많은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제 자녀들은 학교에 가는 것을 중단했습니다. 자녀들은 먹을 것이 충분하지도 않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체중이 줄었는지. 자녀가 굶주림으로 울 때면 부모로서의 삶을 생각하며 공격자들이 멈추도록 애원하기를 바랄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이곳에 있는 저희를 잊지 않기를 계속 기도합니다. 저희가 생존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식량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께, 그리고 전세계 기독교인들에게 기도합니다.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기도제목

형제자매님들, 주님께서 박해자들의 마음을 만져 주시고 평화 가운데로 변화시켜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가 집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자녀들을 주님께 올려 드리오니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자라며 장래의 기회를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해주세요.

데보라의 이야기



그들은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저는 데보라입니다. 저는 과부이고 어린 자녀 다섯 명이 있습니다.

남편은 수리공이었고 물건을 판매했습니다. 그는 콩고 민주공화국에 있는 마을들을 공격하던 이슬람 저항세력들로부터 작업장을 지키기 위해 그곳에서 밤을 세웠습니다. 제가 아침에 도착했을 때 사방에 흩어진 피자국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들이 제 남편을 죽였습니다.' 남편은 망치로 공격을 당했습니다.

저는 아이들을 데리고 오이차라는 마을로 가서 국내 실향민들을 위한 캠프에서 살기 시작했습니다. 직업을 가질 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스스로 부양할 힘도 없습니다. 먹을 것을 얻기 위해 사람들에게 의지해야 합니다.

은혜로 살아간다는 뜻이지요. 오늘 누군가 저에게 카사바 나뭇잎을 많이 줍니다. 내일은 누군가가 또 야자유 반 병을 주지요. 이 모든 것을 통해 저는 생존해가고 있습니다. 저는 여전히 눈물이 많습니다.

저는 초라 합니다. 자녀들은 아빠에 대해 묻습니다. 그러면 저는 언젠가 하늘 나라에서 아빠와 함께 하게 될 것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기도제목

저는 자녀들에게 시편 121편 말씀 불러주는 것을 좋아합니다.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여호와에게서로다" 주님께서 큰 슬픔과 트라우마 가운데 있는 저를 도와 주시기를, 그리고 저희 다섯 자녀들을 돌볼 수 있는 힘을 주시기를 기도해주세요.

소레 목사의 이야기

저는 소레 목사입니다. 부르키나파소의 목사이자 남편이자 아버지, 그리고 그리스도 안의 형제입니다.

저희 마을이 처음 공격을 당했을 때, 극단주의자들은 사람들을 강탈했습니다. 두 번 째 때는 여성들을 강간했습니다. 세 번 째 때는 모든 것을 완전히 불태웠습니다. 테러범들이 기독교인들을 발견했을 때, 그들은 기독교의 시대는 끝났다고 말했습니다. 저희는 목숨을 지키기 위해 도망해야 했습니다.

저는 아내 테레사와 함께 자녀들과 다른 고아된 아이들을 모아 떠났습니다. 4일 동안 걸었는데 국내 실향민 캠프에 도착하자 저희는 이곳에 들어가기에 수가 너무 많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빈 땅에 와서 은신처를 세웠습니다. 밤에는 뱀이 나옵니다. 우기에는 빗물에 뱀이 떠내려 옵니다. 저희는 벗어날 방법을 모른 채 이 같은 환경에 처한 것이 속상합니다. 주님께서 변화시켜 주시기를 신뢰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실향민이 되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절대 저희를 떠나지 않으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께 계속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문을 열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비참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구원받는 이를 계속 세워가고 계십니다.

성경을 보면 모든 전사들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봅니다. 이제 제 차례입니다. 고통에 대한 중요한 사실은 절대 영원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 그러나 예수님께서서는 영원하십니다.

기도제목

성도 여러분,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부르키나파소에서 실향민이 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이들이 믿음 가운데 굳건히 설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제가 믿음을 굳게 지키고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저희 가족이 함께 지내며 그리스도를 따라갈 수 있는 땅을 위해서도 기도해주세요.

조나단의 이야기

저는 이 가족사진을 잘 보존하기 위해 플라스틱 폴더에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죠. 여기에는 저와 제 형제 캄발레 그리고 부모님과 다른 형제들의 모습입니다.

제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형제자매들 대부분 목숨



을 잃었습니다. 민주군사동맹 (ADF) 무장세력이 공격했을 때 집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캠발레는 그곳에서 숨어 있었지만 모든 것을 목격했습니다. 다른 형제들이 침대에서 죽임을 당했는데 캠발레는 어떻게 살아남았는지 물었지만, 캠발레는 그 얘기를 하는 것이 힘겨워 보였습니다.

저와 캠발레는 콩고민주공화국 오이차에 있는 국내 실향민 캠프로 왔습니다. 매일 학교에 가고 오후에는 일거리를 찾아 다닙니다. 잡다한 일을 구할 때면 둘이서 먹을 만큼을 벌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제 신앙 생활도 무너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에 갈 수 없습니다. 교회에 가면 필요한 돈을 벌 수 없기 때문이죠.



기도제목

제 동생 캠발레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는 가족들이 죽임 당하는 모습을 목격했고 정신적 외상을 입었습니다. 치유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저는 계속 학교에 가지만 힘듭니다. 제 장래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리고 저희가 생존할 수 있게 매일 먹을 것을 충분히 얻을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ARISE AFRICA

극심한 박해 지역에 있는 아프리카 형제자매들에게 선물 보내기

3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긴급 은신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5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에게 식량, 의복, 그리고 의료 돌봄을 지속할 수 있습니다.

100,000원으로 실향민이 된 아이에게 한 달치 교육, 새로운 미래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후원문의:

02-596-3171 / 010-7548-3171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카카오톡채널 상담

자동이체: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 - 후원하기

- CMS 캠페인-Arise Africa



[자동이체 신청하기]

계좌입금:

아프리카 / 우리은행 1005-901-884982

예금주: 한국오픈도어선교회

(입금 시 입금자명에

'캠페인' 세 글자를 함께 넣어주세요)

폭력을 중단해주세요. 치유를 시작해주세요.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요한계시록 22:2

일어나라 아프리카는 오픈도어가 특히 아프리카 복음주의 협회
(Association of Evangelicals in Africa)와 협력하여 진행하고 있는 캠페인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박해 받는 가족들을 위해 교회로 함께 서주세요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이 폭력적인 박해에 맞선 호소에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여러분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서 박해 받는 기독교인으로 사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주세요. 전세계 기독교인들과 함께 행동해주세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의 돌봄과 긍휼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고 실향민이 된 기독교인들은 버려지고 잊혀진 것 같이 느낍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교회와 함께 행동하며 박해 받는 그리스도의 가정들과 함께할 수 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픈도어선교회

ARISE AFRICA

“저희는 공격 아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도울 때입니다.

불의에 대해 목소리를 높일 때입니다.

교회를 위해 일어서 주세요.”

- 조나단, 어그베데 나이지리아
베누에 한 교회 지도자



일어나라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함께 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현재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는 위기입니다.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은 나이지리아, 부르키나파소,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은 곳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전례 없는 폭력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 10명 중 9명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서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공격을 당하고, 납치를 당하고, 살해를 당하고 있으며 기독교 마을들과 학교들을 파괴되고 있습니다. 부르키나파소는 테러단체들에게 토지의 40%를 잃었고, 나이지리아와 같은 곳은 무장 단체들이 처벌받지 않고 행동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폭력과 갈등은 사람들을 집에서 몰아내고 있습니다. 신앙을 이유로 박해 받는 많은 이들을 포함해 1,620만 명으로 추정되는 기독교인들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임시 천막에서 생존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굶주리고, 트라우마를 당하고, 소망을 잃고 있습니다.

이는 대규모의 인도주의적 위기이며 교회의 미래를 위협 가운데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이에 대해 얘기하지 않습니다 - 저희 형제 자매들은 세상이 그들을 버린 것 같이 느낍니다.

이 지역의 교회 지도자들은 여러분께서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을 통해 동참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여러분은 폭력을 중단하고 치유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기독교인들 중 1,620만명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실향민이 되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은 신앙을 이유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이 처한 상황으로 인해 하나님 안에서의 소망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해줄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기도할 수 밖에요...”

- 나이지리아 북부에 있는
국내 실향민 캠프의 바나바 목사



오픈도어는 2027년까지
다음은 목표로 합니다:



400만명의 기독교인들을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정서적으로 돕습니다.



변화를 위한 백만 기도 운동을
일으켜 주세요.



여러분의 교회가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 온 세상 가운데 목소리를
높여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 동참하는 방법

어떤 활동인가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에 있는 우리의 형제 자매들에게 일어나고 있는 전례 없는 박해를 주제로 하는 교회 예배 또는 강의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교회 성도들은 기도와 행동으로 응답할 수 있습니다.

준비할 것은?

여러 이야기와 배경 설명에 대해 읽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다양한 영상도 시청할 수 있습니다.

창의력을 발휘하여 여러분의 교회에 나무를 세워주세요. 나뭇가지를 모아서 나열하거나, 판자 나무를 만들거나, 화면에 나무 사진을 올려 놓거나, 틀에서 벗어나 생각해봐도 좋습니다! (아래는 다른 교회들이 세운 나무입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기도와 정의의 나무 동참하기:



그들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월간지 앞 부분에서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주세요. 한국오픈도어 유튜브 채널에서 그들의 영상을 시청하셔도 좋습니다.



나뭇가지를 준비해주세요

월간지 뒤 부분에서 나뭇잎 그림을 사용해 기도 나무 잎사귀를 만들어주세요. 다량으로 사용할 때는 스캔 또는 복사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기도제목을 작성해주세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을 함께 기억해주세요. 잎사귀에는 기도제목 또는 성경 구절을 써주세요.



함께 기도해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잎사귀들을 같이 붙여주세요. 공동체 사람들과 함께 나무 앞에 모여 기도해주세요. 개인으로 참여할 때는 한국오픈도어선교회로 잎사귀를 보내주셔도 좋습니다.



변화를 위해 호소해주세요

교회에서 기도하고 정의의 나무를 세우고 한국오픈도어선교회를 예배 또는 강의 시간에 초청해주세요. 박해 받는 형제자매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 수 있도록 동참해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의 중심에는 기도과 정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이지리아의 국목 녹나무(camphor tree)의 영감을 받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교회들의 회복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성경 마지막에는 생명나무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열매 맺고 풍요로운 이 나무는 치유를 가져다 줍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요한계시록 22:2).

기도와 정의의 나무도 소망과 생명을 가져다 줍니다. 이는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내 박해 받는 교회들의 고통과
- 전세계 그리스도의 가족으로서 응답을 상징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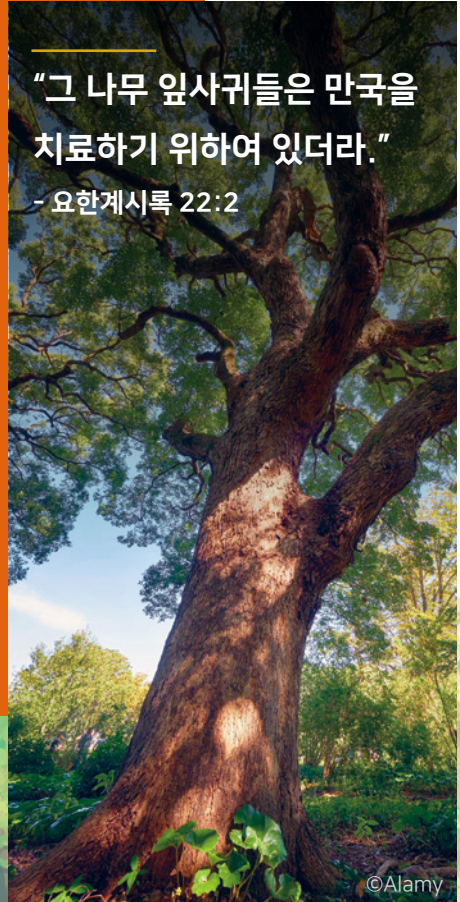
세상이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내 폭력적인 박해의 공포에 대해 알게 되며 녹나무는 아프리카 교회의 능력과 회복력을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나무의 크기와 만연함은 기독교인들이 전세계 어느 곳 보다 아프리카에 많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반영합니다.

녹나무는 박해 받는 교회의 경험을 반영해주는 특별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요한계시록 22:2



향기

녹나무 잎사귀가 으스러질 때
장뇌 향을 강하게 방출합니다.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또한 극심한 박해 아래서도
힘있게 예수님을 증언합니다.

몸통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고통 받으신
상처를 상기시켜 줍니다.

잎사귀

이것은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의 기도와 소원입니다
- 여러분 교회의 증보기도입니다.

회복력 있는 성장

녹나무는 다른 나무들이 다 죽어
있는 황무지에서 번창합니다.
이는 박해 받는 교회의 인내력과
회복력을 나타냅니다.

기도제목

- ▶ **폭력이 종식되도록**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폭력범들에게 말씀하시고 그들을 평화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 **애통해 하는 이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슬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켜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 **국제 단체들이**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에 대한 공격에 있어 종교적 차원에서 의식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그들이 지혜, 인도하심, 그리고 자원을 누릴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 ▶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교회들이 인내하고
- 회복, 인내, 결의, 그리고 충실함 가운데서 더욱 성장** 할 수 있도록 기도해주세요. 교회가 주님의 빛으로서 빛나도록 기도해주세요.
- ▶ **난민 캠프**에서 매일 같이 고통 받고 있는 그리스도 안의 형제자매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주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시고 악에서 구해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주세요. 처벌 받지 않는 폭력적인 박해자들을 종식할 수 있도록 의지와 전략과 자원을 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 ▶ 여러분께서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 박해 받는 가족들을 관심 갖고, 기도하고 함께하는 가운데 주님께서 **도와주시도록** 기도해주세요.

전세계 공동체가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이외 취약한 개인들이 다음을 통해 존엄과 존중 받을 수 있도록 호소합니다:

- 1 폭력적인 무장 공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 받을 수 있도록
- 2 공격자들을 공정하게 기소하여 정의를 보장하도록
- 3 영향을 입은 모든 공동체들 가운데 치유를 가져올 수 있게 (배상, 재활, 그리고 보상을 통해) 회복을 보장하도록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네 빛이 이르렀고.”**

- 이사야 60:1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의 박해 받는 가족들과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실천은 그들이 혼자가 아님을 알게 합니다.



일어나라 아프리카 기도 나뭇잎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붙일 기도 나뭇잎을 만들어주세요

안내

- 1 잎사귀를 오려 내 주세요
- 2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에 있는 박해 받는 형제 자매들을 위한 기도제목을 작성해주세요
- 3 원하시면 성경 구절을 넣어도 좋습니다
- 4 교회 기도와 정의의 나무에 잎사귀를 붙여주세요



기도와 정의의 나무가 무엇인가요?

일어나라 아프리카 캠페인의 중심에는 기도와 정의의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는 나이지리아의 국목 녹나무 - 회복력 있고 늘 푸른 나무의 영감을 받아 사하라 사막 이남 아프리카 교회들의 회복과 소망을 상징합니다.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 요한계시록 22:2

월드와치리스트 2024

기독교인의 종교적 자유 현황

월드와치리스트 2024 보고기간 2022년 10월 1일 - 2023년 9월 30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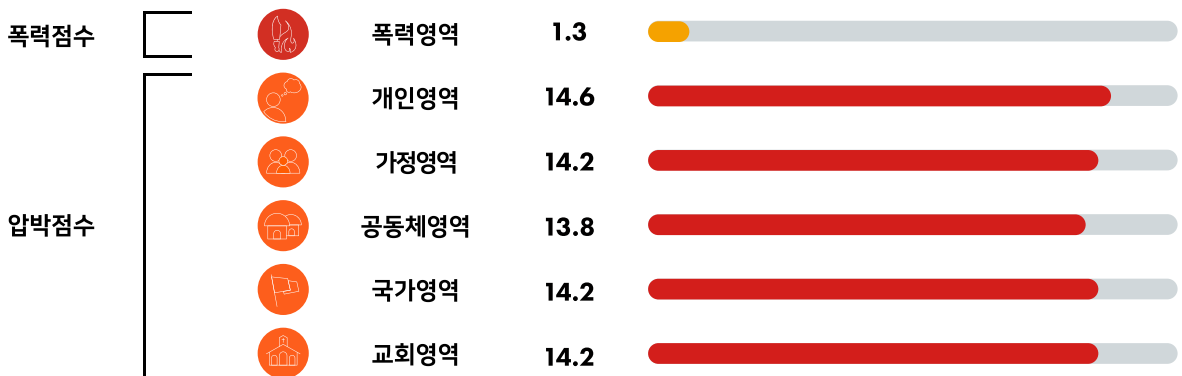
기독교 박해지

23위

모리타니 (MAURITANIA)



폭력과 압박의 정도



* 6개 영역 박해 지수는 영역 별로 16.7점을 만점으로 책정한다. 영역별 총합은 100점이다 (6 x 16.7=100)

중요한 발견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극도의 반대에 부딪힌다. 이런 탄압적 환경은 이들에게 공적인 예배 드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 모리타니아 토착민이 아닌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을 포함하는) 기독교인들이 신앙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것도 무슬림을 개종 시키려는 포교로 간주되어 투옥과 추방으로 이어질 수 있다.

모리타니 (MAURITANIA)

국가 정보

지도자 : 모하메드 울드 엘-가자우아니 대통령

인구 : 5,030,000

기독교인 수 : 11,100¹

주요종교 : 이슬람교

정부형태 : 대통령제 공화국



국가 상황

종교 상황	신자 수 (명)	비율 (%)
기독교인	11,100	0.2
이슬람교인	4,994,000	99.3
민족종교주의자	19,400	0.4
불가지론자	4,800	0.1

출처²

모리타니는 광물 자원이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전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의 하나이다. 문화는 전통적이며 부족이 그 핵심에 있다. 지속적으로 내려온 노예 제도의 관행은 사회 분열과 악 감정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다; 백인인 무어인과 베르베르인은 아랍 혈통이지만, 하라틴 또는 흑인 무어인이라 불리는 노예들은 대부분 아프리카 민족 혈통이다. 이것은 거의 모든 정치적, 경제적 세력이 백인인 무어인에게 있고, 그 외 사회 구성원의 대다수가 (70%) 상당히 밀려나 있다는 의미이다.

과격 이슬람 무장단체는 수도 누악쇼트 주위 서부 지역은 일반적으로 더 안전하기는 하나, 동부 국경 지역에 더욱 활동이 강하고, 무장 단체와 다른 범죄 조직에

의한 납치는 특히 외국인들에게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위험 요소이다.

국가의 정식 명칭은 모리타니 이슬람 공화국이며; 대부분이 수니파 무슬림이다. 정부는 어떤 식으로든 포교 활동을 막고,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간 개종자들에게 정부의 적대감은 높다. 이론 상으로 이슬람을 배교하는 자에게는 사형을 선고하나, 근래에 이것을 실행한 적은 없다. Middle East Concern에 의하면, “언론 법에서, 비이슬람 종교 자료에 대해 개인 소장도 가능하나, 인쇄, 배포, 수입하는 것은 금지 되어있다.”

국내 대부분 기독교인은 주로 세네갈과 기니비사우와 같은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온 외국인들이다. 그들은 제한적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예배에 참석은 할 수 있으나 지정된 장소에서만 가능하다. 모두 무슬림으로 여겨지는 모리타니 사람들을 향한 어떠한 봉사 활동도 엄격히 금지되어 있다. 세계 기독교 데이터베이스 (WCD)에 따르면 모리타니 기독교인 대다수는 로마 가톨릭 신자들이다.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모리타니 사람의 수는 여전히 소수로 남아 있다. 그들은 가족과 사회와 정부로부터 극도로 심한 박해를 받는다.

¹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² 정보 출처: Todd M. Johnson and Gina A. Zurlo, eds., World Christian Database (Leiden/Boston: Brill, accessed March 2023)

지역별로 상황이 어떻게 다른가?

특히 농촌에서는 부족과 가족 간 유대가 엄격하지만 수도 누악쇼트에서도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압박이 매우 클 수 있다. 이슬람 마그렙에 있는 알 카에다 (AQIM)와 서아프리카의 단결과 지하드를 위한 운동 (MUJAO)은 특히 동부 국경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어 기독교인들에게 위협이 되고 있다.

누가 영향을 받았는가?

국외 거주자 기독교 공동체들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 기록과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역사적 기독교 공동체들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 로마 가톨릭 이주민들이 주류를 이루고, 모리타니 남부 국가 출신 개신교와 복음주의자들이 다음을 차지 한다. 서구 기독교인들의 수는 적다. 아프리카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민족적 편견과 이슬람 극단주의와 관련된 압력으로 인해 위태로운 생활을 한다.

기독교 개종자들

이슬람교 출신의 기독교 개종자들은 이슬람 단체, 그들의 대가족, 그리고 지역사회로부터 표적이 되는 위협과 폭력에 매우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유목 사회에서 공동체의 상호 의존은 생존을 위해 필요 불가결하다. 개종자들은 자신의 개종이 발각될 경우, 공동체에서 자신의 입지를 잃어 버리기 때문에 대부분 신앙을 숨기려 한다.

비전통적 기독교 공동체

이 범주는 기독교 박해 지수 점수 기록 및 분석에 포함되지 않는다.

박해와 차별의 주요 근원

이슬람의 탄압

이것이 모리타니에서 작동되는 박해의 근본적 동력이다. 모리타니는 자칭 이슬람 공화국이며, 이슬람 주의가 나라의 지배적인 정치 이념이다. 비이슬람 교도들은 특히 이슬람 단체에 의해 위협과 박해를 경험한다. 많은 모리타니 사람들이 아프리카 북부와 시리아와 이라크에 있는 과격 무장 단체에 가담하고 있다. 정부는 한편으로는 이슬람 무장 투쟁을 시도하면서, 동시에 와하브와 무슬림 형제단과 같은 다른 급진 이슬람 운동에 공적으로 공간을 제공한다. 이슬람에서 기독교의 개종한 사람들은 그들의 새로운 신앙으로 인해 가족과 사회에서 박해의 피해를 입는다.

씨족의 탄압 / 민족 종교적 적대감

도시화가 비교적 현재적 현상인 보수적이고 전통적인 이 나라에서는 부족과 인종 간에 긴장은 얽혀 있다. 무슬림이 기독교인이 되면 가족과 정부의 압력 뿐만 아니라, 부족이나 민족 전체가 느끼는 수치심으로 인해 더 큰 박해를 받게 된다. 민족성과 연계된 노예의 문제도 박해에 한 몫 하는 것은, 노예 제도의 옹호자들이 그들을 박해하는 것을 이슬람에게 승인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노예제도 반대 운동은 이슬람주의자들로부터 적대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켰다. 국내에 살고 있는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기독교인들은 종교적, 그리고 인종적 차별을 함께 겪는다.



조직화된 부패와 범죄

부족간의 관계, 종교적, 개인적 관계는 모리타니에서 매우 중요하다. 인척주의, 고객주의, 그리고 다른 형태의 부패는 정부 내에도 널리 퍼져 있다. 반부패 캠페인은 미미한 수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왔다. 국가 당국이나 국영 기업과 관련된 부패 사건을 조사하는 언론인들은 협박, 구금, 명예 훼손 혐의로 기소되었다 (BTI 2020, p.12). 군대와 대통령직과 관련된 권력자들은 자신을 풍요롭게 하고, 처벌 받지 않고 행동할 수 있다.

이슬람의 탄압

현 정부는 권력 장악에 혈안이 되어 있고, 기독교화되는 어떤 영향력이 정부의 권력을 위협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긴다면 이에 더한 박해가 올 수 있다. 또한, 정부는 기독교를 탄압함으로써 이슬람 단체들 사이에서 그들의 정당성을 강화하려고 노력한다. 이것은 특히 2019년 대통령 선거 이후 현재까지 계속되고 있다. 기독교는 종종 서구화와 동일시되며, 따라서 정부는 이것을 외국의 위협으로 여기고, 그들의 가족과 사회도 기독교를 용납하지 않는다.

남성과 여성이 받는 영향은 어떻게 다른가?

여성

모리타니의 부족 사회에서는 여성이 아버지와 남편의 권위에 종속되어, 여성 개종자들은 가장 취약한 위치에 있다. 음식을 빼앗기거나, 괴롭힘을 당하고 가택연금 당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여성은 선택의 여지없이 무슬림 남성과 결혼을 강요 당하며, 거부하면 매장을 당할 수도 있다. 기혼 여성 개종자들은 생존할 수단도 없이 쉽게 이혼을 당하며, 일부다처제는 여전히 실행되고 있다.

여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적 공동체 / 연결망 접근 제한
- 강제 이혼
- 강제 결혼
- 가족에 의한 감금/가택연금
- 폭력-신체적/정신적/성적

남성

탈레반은 남성들에게 좋은 가장임을 보이기 위해 하루에 다섯 번 씩 기도하고, 모스크에 참석하며, 금식하고, 또한 “적당한” 수염을 길러야 한다고 압박한다. 기독교 남성들은 자신의 믿음으로 인해 조롱과 투옥, 고문, 성적 학대, 그리고 잠재적으로 죽음에 직면한다. 또한 남자와 소년들은 그들의 단체에 가입하도록 강요하려는 민병대의 표적이 된다. 이런 압박에 비추어 볼 때,

기독교 남성, 특히 개종자들은 가능한 한 낮은 인지도를 유지하기로 선택하고, 일부는 원치 않는 관심을 피하기 위해 직장에서 낮은 수준의 직책을 선택한다.

남성이 전형적으로 겪는 압박 지점들:

- 사회적 공동체/연결망 접근 제한
- 정부에 의한 투옥
- 폭력-죽음/신체적/정신적/언어적

월드와치리스트 5 년 동향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오픈도어 기독교 박해지수 순위	박해점수 (100점 만점)
2024	23	72
2023	20	72
2022	23	70
2021	20	71
2020	24	68

모리타니는 2023년 월드와치리스트에서 같은 점수를 얻었지만, 그러나 순위는 세 단계 하락했다. 평균 압박은 14.2점으로 극단적이지만, 폭력은 1.3 점으로 여전히 낮다. 특히 개인, 가족, 국가 및 교회 영역에서 극도로 높은 수준의 압력은 모리타니 지역 기독교인들이 가족, 지역 사회, 정부로부터 받는 압력을 직면하는 압력을 나타낸다. 마찬가지로,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출신의 국외 거주 기독교인들은 모리타니 사회와 정부로부터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으며, 그들의 신앙은 인종 차별 위에 더욱 취약하게 만들고 있다.

보고 기간 동안의 폭력 사례들

국내 토착민 기독교인과 이주민 기독교인들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는 몇 가지 사건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보안의 문제로 자세한 사항은 제공되지 않는다.

- 세례는 비밀리 수행되어야 하고, 이슬람에서 개종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발각되어 배교 혐의를 받는 것이 두려워 세례 받는 것을 주저한다.
- 가족에게 발각된 개종자들은 종종 추방의 압박을 받기도 한다.
- 보고 기간 동안,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공동체의 두 젊은 여성이 그들이 원치 않는 강제 결혼을 당하였다.

월드와치리스트 연도	구금당한 기독교인	신체적, 정신적으로 학대 당한 기독교인들	추방당한 기독교인	강제 결혼 당한 기독교인
2024	0	10*	1	2
2023	2	10*	7	0

이 표는 보고 기간 발생한 신앙 관련 폭력의 몇 가지 범주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전체적인 결과는 Full Country Dossier의 폭력 영역에서 확인 가능하다. 많은 사건들이 보고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수치는 최소한의 수치로 이해되어야 한다. 정확한 계산이 불가능한 경우에 상징적인 어림 수가 주어졌고(10*, 100*, 또는 1000*) 이 결과들은 실제로 상당히 더 높을 수 있다.

개인 영역

기독교인이 자신의 신앙을 드러내는 것은 위험하다. 이주민 기독교인들, 특히 사하라 이남 출신의 기독교인들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인임이 밝혀질 경우 차별과 학대를 받고, 포교하는 것으로 고발 당할 수 있다. 세례는 비밀리에 행해져야만 하고, 이슬람 출신의 많은 개종자들은 세례 받기를 꺼린다; 그들은 발각되는 것을 두려워하는데, 그것은 그들에게 배교 죄가 적용되기 때문이다. 이슬람으로부터 개종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고, 이슬람교를 비판하는 자는 사형을 당한다. 이 법은 대체로 상징적이지만, 이슬람교 출신의 개종자들에게는 여전히 중대한 위협으로 남아있다.

가족영역

모든 모리타니 사람과 그들의 자녀는 자동적으로 무슬림으로 여겨지고 등록된다. 기독교인 자녀들은 공립 학교에서 이슬람 수업을 받아야 하고 차별과 괴롭힘을 당하기도 한다. 모리타니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는 것은 이혼 사유가 되고 개종이 공개적으로 알려진 부모는 자녀에 대한 양육권을 박탈 당할 수 있다.

공동체영역

이슬람교 수니파를 따르지 않는 모리타니 사람에 대해

서는 극도의 공동체적 압력이 가해진다. 그들은 배척, 사회적 차별, 경제적 배제, 폭력의 형태를 받을 수 있다. 모리타니 사회는 민족적으로 분열되어 있고, 경제와 정부가 부패되고 거래가 오가는 고객주의 사회가 되었다는 사실로 인해 문제는 더 고조되었다. 사하라 이남 출신의 이주민 기독교인들은 자신의 피부색과 신앙, 둘다로 인해 차별을 겪는다.

국가영역

모리타니에는 배교와 신성 모독에 대해 사형으로 처벌하는 형법을 가지고 있다. 기독교인들은 그들의 말이 이슬람이나 정부에 대한 비판적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 깊게 행동해야 한다.

교회영역

프랑스 통치의 유산으로 인해, 로마 가톨릭 교회만 합법적인 지위를 가지며 공공 건물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복음주의자들이 누락소트 교구에서 예배를 위해 구내 한 공간을 사용하도록 허용한다. 포교가 엄격히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이주민 교회들은 무슬림 배경의 개종자들을 그들의 공동체에 통합하는 것은 고사하고, 교회 건물 안으로 받아들이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국제적 의무 및 권리에 대한 위반

모리타니는 다음 국제 조약들에서 기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기로 약속했다.

1.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CPR)
2.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 규약 (ICESCR)
3. 고문 방지 협약 (CAT)
4. 여성 차별 철폐 협약 (CEDAW)
5. 유엔 아동 권리 협약 (CRC)

모리타니는 다음 기독교인들의 권리를 자주 침해하거나 보호하지 못하고 있으며, 국가의 국제적인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있다

- 기독교로 개종하는 모리타니안들은 구금 되는 동안 투옥과 비인간적인 대우를 받는다 (ICCPR 제 7, 9, 18조)
- 여성 기독교 개종자들이 신앙을 버리도록 강요하기 위해 심지어 성년에 달하기 전에 무슬림 남성들과의 강제 결혼의 위협에 직면한다 (ICCPR 제 23조, CEDAW 제 16조, ICESCR 제 10조)
- 기독교인 아동들은 공립학교에서 이슬람 종교 수업에 참여해야 하고 이들의 신앙 때문에 차별과 압박에 직면한다 (ICCPR 제 18조, CRC 제 14조)
- 기독교인 개종자들은 공동 자원에 접근하는데 있어서 제외되고 사업은 보이콧 강한다 (ICCPR 제 26조, ICESCR 제 11조)

이외 소수 종교 집단의 상황

모리타니 안에서는 매우 작으나 성장하고 있는 시아파 무슬림 소수 민족이 있다. 역사적으로 모리타니 정부는 이란과 좋은 외교 관계를 가졌고, 시아파를 겨냥하는 것에는 주저했다. 그러나 2018년에 시아파 종교 센터 한 곳이 폐쇄되었다. 수니파 종교 지도자들은 정부가 규제를 가할 것을 요구하며 소수 집단에 대한 비난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다.

오픈도어의 모리타니 사역

오픈도어는 모리타니의 기독교인들을 위한 기도의 지원을 일으키고 있다.





북한선교현장

김서윤 전도사

이끄심: 시작은 어머니로부터 (7)

우리 가족은 최선을 다해 여정을 이어갔지만 이 먼길을 걸어 간다는 것은 너무나 요원한 일이었다. 우리도 그 사실을 알았지만 다른 방도가 없었다. 그 때 하나님께서는 해매고 있는 우리를 딱하게 생각하셨는지 이 산행을 반강제적으로 끝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를 이끄셨다.

그 날도 영하 30도가 넘는 혹독한 날씨였다. 온 몸이 꽁꽁 얼었고 얼음장같이 차가운 발은 더 이상 걸을 수 없었다. 온통 흰 눈에 덮인 눈밭만 보였고 인가는 보이지 않았다. 우리는 발이 너무 시려서 눈 한가운데 쌓아놓은 벚짚단 속을 비집고 들어갔다. 그리고 서로의 발을 옷 속에 품어 녹여주었다. 얼음덩이와 같은 어머니의 두 발이 내 배 위로 들어오는 순간 머리끝까지 느껴지는 추위에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렇게 우리 가족은 얼어붙은 발을 서로의 품속에 넣고 잠시 동안 죽어가던 세포를 다시 깨웠다. 벚짚 사이에서 추위를 피한 우리는 날이 밝아 올 때쯤 혹시나 사람들이 물려올까 경계하며 그곳을 벗어났다.

날이 밝아오니 혹한의 추위 속에서 사방에 눈이 온통 반짝반짝 빛났다. 우리의 물결은 영락 없는 거지꼴이었지만, 보여지는 매무새나 추위, 배고픔, 고단함은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았다. 다만 우리는 오직 대한민국을 가기 위해서 걷고 또 걸었고 그 1차 목적지는 길림성(吉林省) 길림시(吉林市)였는데, 얼마나 왔는지 그리고 얼마나 더 가야 하는지 도무지 알 수가 없어 불안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동쪽을 바라 보며 산과 마을을 넘고 또 넘었다.

그렇게 한참을 걷던 어느 날, 우리는 수백 마리의 닭들

이 들판에서 '꼬꼬댁' 거리며 놀고 있는 풍경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생전 처음으로 수백 마리의 닭이 뛰어노는 광경을 보았다. 그 닭들을 보며 엄마와 나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동시에 "저 많은 닭 중에 딱 한 마리만 먹어봤으면..." 하고 중얼거렸다. 그렇게 눈앞에 보이는 그림의 떡과 같은 닭을 쳐다보며, 입맛을 다시면서 왜인지 모르게 일어나는 아쉬움을 뒤로 하고 걸음을 옮겼다. 그 때 뭔가 물컹한 것이 발 끝에 걸렸다. 눈을 돌려 아래를 내려다보니 하얀 눈 속에 닭 세 마리가 죽어 있었다. 내 발이 닿은 닭의 안에서는 생쥐들이 닭 내장을 파먹다가 우르르 도망갔지만, 다행히 나머지 두 마리는 아직 상태가 멀쩡했다. 우리는 서로 번갈아 보며 웬 황재인가 싶어서 죽어있는 닭들을 주워서 탈탈 털어 어머니와 나의 배낭에 넣었다. 닭을 너무나 손쉽게 주운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이것이 웬 떡인가 싶었다. 고맙고 기쁘고 신이 나서 발걸음도 가벼웠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어리고 왜소했던, 그리고 추위와 굶주림 속에서 자기몸 가누기 힘들었던 나에게 꽁꽁 얼어붙은 닭의 무게는 생각보다 더욱 상당했다. 나중에는 버리고 싶을 만큼 어깨가 무거웠다. 게다가 하필 그 날은 걷고 걸어도 우리가 들어가서 몸을 녹일만한 곳을 찾을 수 없었다.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어렵게 매고 온 닭을 그냥 버릴까 했던 그때, 다행히 인적 없는 어느 과수원의 초막집을 발견할 수 있었다. 겨울 내내 사람이 머문 흔적이 없는 곳이었다. 어머니는 바닥에 모닥불을 피우고, 초막 주변에 있는 강통들과 솔뚜껑을 주었다. 그리고 밖에 있는 하얀 눈을 떠서 물을 끓이기 시작했다. 물이 끓어오르자 어머니는 닭의 털을 뽑고, 가지고 다녔

던 맥가이버 칼로 대충 닭을 조각내어 삶았다. 뽀얀 국물이 올라오며 닭이 익어가는 향이 얼마나 좋았던지 침을 꿀꺽꿀꺽 넘어갔다. 마침내 닭이 익었다. 간을 맞추는 소금 하나 없었지만 닭다리를 하나 잡고 뜯으니 그 순간에는 그 닭다리가 지구상 그 어떤 음식보다도 맛있었다. 얼마 만에 먹는 고기인지... 우리 가족은 닭 비린내 같은 것은 신경도 쓰지 않고 너무도 맛있게, 숨소리도 내지 않고 허겁지겁 닭고기를 먹었다. 그러고는 오랜만에 경험하는 배부름과 포근함에 취해 기절한 듯이 잠들었다.

얼마나 잠들었을까... 모닥불의 불씨가 꺼질 즈음 어머니께서는 몸을 꾸그리고 서로에게 기대어 자고 있는 우리들을 챙기시며, 땀감이 떨어진 것을 보시고 불이 꺼지지 않도록 땀감을 찾으려 밖으로 나가셨다. 그런데 온통 눈이 가득 쌓인 어둠 속에서 바닥에 굴러다니는 각목을 불에 때려주고 주워서 꺾으시다가 그만 한 각목에 박혀있던 대못을 밟고 마셨다. 어머니의 발은 못에 관통되었고 삼시간에 통통 부어올랐다. 어머니는 천으로 발을 대충 묶고 지혈을 하셨다. 끔찍한 고통이 발끝에서부터 전해져 왔지만 어머니는 그 와중에도 자신의 몸을 걱정하시기 보다는 이제 어떻게 여정을 이어갈까를 걱정하셨다.

그렇게 한참을 통증과 싸우다가 자신도 모르게 깜박 잠드셨던 어머니는 그 잠깐 동안 차를 타고 이동하는 꿈을 꾸셨다. 잠에서 깨신 어머니는 그 꿈을 생각하시며 이제는 어떻게 해서든지 차를 얻어 타는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셨다. 중국말도 못하고 어떤 사람과 마주칠지도 모르지만 도박을 하는 수밖에 없었다. 마침 북조선에서 열심히 공부했던 나의 한자 실력이 빛을 발했다. 나는 '길림(吉林)'이라고 한자로 종이에 썼고, 우리는 그 종이를 들고 걸어서 강변도로까지 나왔다. 처음에는 용기가 나지 않아 손도 내밀지 못하고 몇 대의 차를 그냥 보냈다. 그러다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싶어 용기를 내어 손을 흔들었고, 지나가던 용달차 하나가 우리 앞에 멈추어 섰다. 나는 길림이라는 한자가 적힌 종이를 보여주며 시계와 기차를 그려서 보여주었다. 그 아저씨는 우리의 모습을 보더니 흔들리는 눈빛으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차에 태워 주었다.

아저씨 눈에는 우리가 매우 의심스럽고 위험해 보였을 것이다. 그 당시에도 중국으로 넘어 오는 북한사람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면 많은 벌금 등 처벌과 불이익이 있었던 것으로 기억한다. 그렇지만 우리 남매들의 모습이 안쓰럽고 딱하셨는지 더 이상 캐묻지 않으시고 운전만 하셨다. 그 와중에 우리는 졸지도 않고 창 밖을 훑어지게 바라보았다. 창밖으로 압록강과 북한이 계속 보였다. 당장이라도 북한 군인들이 넘어와 우리를 데리고 갈 것 같아 자꾸 신경이 쓰였고 불안했다.

한참을 달리자 마을들이 보였고 우리 눈앞에는 중국 변방대 군인들이 검열하는 초소가 보였다. 검문소에서 모든 차량을 검열하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숨이 멎을 것만 같았다. 아저씨는 예상을 하셨는지 차를 검문소에서 멀찍이 세우시고는 우리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손짓 하셨다. 그리고는 차에서 내리시며 차 문을 잠그셨다. 우리 마음은 차를 탄 것에 대한 후회로 가득해졌다. 영락없이 '독 안에 든 쥐' 신세가 된 우리는 가슴을 졸이며 아저씨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아저씨는 한참을 군인들과 이야기를 하시고, 다시 차로 돌아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걱정과는 달리 특별한 검열 없이 그곳을 통과할 수 있었다. 검문소를 통과할 때 아저씨의 표정은 다소 비장하셔서 우리는 아무 말 못하고 숨죽이고 있었다.

그렇게 또 한참을 달리고 달려 림강(臨江)이라는 도시에 들어왔다. 처음 보는 중국 도시의 광경에 동생들은 "우와, 우와!"를 연발했고, 길 바닥에 버려진 음식물 쓰레기와 멀쩡해 보이는 굴, 만두가 굴러다니는 것을 보고 신기해하며 종알거렸다. 하지만 나는 불안하기만한 것이 도무지 역이 보이지가 않았다. 언어가 통하지도 않으니 물어볼 수도 없었고, 또 고마운 아저씨를 의심하면 안 될 거 같아 내면에 갈등이 있었다. 그러던 중 저편 멀리 뾰족하고 높은 시계탑이 보였다. 그제야 우리가 제대로 잘 도착했다는 것이 실감이 났다. 아저씨는 기차역 옆 골목에 차를 세우시고 우리를 내려주셨다. 그리고 나와 동생들을 측은하게 바라보며 가라고 손짓하셨다. 떠나는 아저씨에게 우리는 고마움을 다 표현하지도 못한 채 배꼽인사만 여러 차례하고 서둘러 그 자리를 떠났다.

(계속)



Mission
Bible
College

성경대학시리즈

성경이 말하게 하라!

셀프 스터디에서부터 국내 목회 현장,
해외 선교 현장까지

성경대학시리즈는 성도들이
초보적인 신앙에서 벗어나
성경을 깊이 이해하고
사명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수년간 사역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개발되고 있는
성경교육프로그램입니다.



초보적인 신앙에 머무르는 현지인 성도를 영적 리더로 길러내고자 하지만
훈련과 자료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선교현장**,

각종 이단과 불건전한 신학의 홍수 속에서 성경으로
균형잡힌 건강한 성도들을 세워가기를 원하는 **목회현장**,

그리고 성경을 깊이 있게 공부하고 싶지만
어려운 훈련 프로그램은 부담스럽고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지 고민스러운 **평신도**를 위해

성경대학시리즈(Mission Bible College)의 특징

1. 성도들이 복음의 기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경을 깊이 있게 접하고 영적 리더로 도약하도록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2. 교사가 앞에서 직접 가르쳐주는 스타일로 구성되어 혼자서도 공부할 수 있고, 개인 묵상과 소그룹에서 활용할 수 있는 질문과 묵상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3. 성경 자료가 부족한 선교지를 위해 성경 본문과 참고 자료들을 한데 모아서 정리하여, 한 권의 책만으로도 깊이 있는 성경 공부가 가능합니다.

미션 바이블 칼리지는 4개 과정, 40여개 과목으로 계속 개발, 발간될 예정입니다.

※ 교제 구입 관련 자세한 문의는 한국오픈도어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오직 신앙 때문에 박해받는 사람들을 위한

나의 희망의 선물

우리의 작은 실천이
한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성경전달/훈련

- 선물1. 박해지역 성경전달-오디오/디지털 성경포함 6\$(7,000~)
- 선물2. 박해지역 제자훈련-SSTS세미나 등 20\$ (30,000₩ ~)
- 선물3. 박해지역 목회자훈련/컨퍼런스 20\$ (30,000₩ ~)



생계지원

- 선물4. 이슬람 박해지역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5. 탈북자 안전가옥 및 생계지원 30\$ (40,000₩ ~)
- 선물6. 박해지역 수입창출 프로젝트 지원 40\$ (50,000₩ ~)



여성,어린이 케어

- 선물7.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트라우마 치료,지원 40\$(50,000 ₩ ~)
- 선물8. 박해피해 여성/어린이 교육과 생계지원 40\$ (50,000₩ ~)
- 선물9. 박해지역 어린이 주일학교, 캠프지원 20\$ (30,000₩~)



난민/투옥자/파괴된 교회 지원

- 선물10. 박해로 인한 크리스천난민 구호, 지원 50\$ (60,000₩ ~)
- 선물11. 박해피해 크리스천 법률지원 50\$ (60,000₩ ~)
- 선물12. 박해공격으로 파괴된 교회 보수/건축 100\$ (120,000₩~)

참여안내 "후원자님이 지정하신대로 박해받는 교회와 성도들에게 전달됩니다"

1. 후원항목을 원하시는대로 선택하세요 (다중선택가능)
2. 총 선물 금액을 오픈도어 '희망의 선물' 계좌로 송금해주세요
[신한은행] 100-027-453994 (예금주 : 한국오픈도어선교회)
3. 전화 / 휴대폰 / 메일 / 카카오톡채널로 신청내역을 알려주세요
4. 매월 자동이체(CMS)로 선물을 보내실 수 있습니다

선물번호:	이름(예금주):	주민번호:
주소:		-
전화번호:	출금 은행 및 계좌번호:	
출금액:	출금일 선택 5일 25일	출금동의서명:

*연말정산시 기부금영수증을 원하시는 분들은 주민번호 13자리를 꼭 기입해주세요.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계 3:2)
Wake up! Strengthen what remains and is about to die. Rev 3:2

YEARLY CAMPAIGN

개인 후원자 500명,
후원교회 100교회의
손길을 기다립니다.

진흙속에서도 꽃은 피어납니다.
굴이 깊을 수록 절경을 빚어 냅니다.
박해와 핍박속에서도 성도들의 믿음은
정금과 같이 빛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박해받는 성도들을 더욱 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이 사역을 더욱 힘있게 감당할 수 있도록
선교회의 운영과 개발사역을 위해
월 20,000₩ 정기후원자와
월 50,000₩ 정기후원교회가 되어 주세요!

● 한국오픈도어 CMS 정기후원 자동이체 신청하기

이름(예금주)		출금은행		계좌번호	
주민번호		출금액	20,000원 기타:	출금일	<input type="radio"/> 5일 <input type="radio"/> 25일
전화번호		출금동의 서명			
주소					

*작성하신 후 사진을 찍어서 편하신 방법으로 보내주세요

휴대폰: 010-7548-3171 메일: odsk@opendoors.or.kr 카카오톡채널: 한국오픈도어선교회 Open Doors